제 1강: 난세를 어찌 살아갈고

漁父辭_ 굴원, 弔屈原賦 (가의)
어 부 사 조 굴 원 부

〈고문진보〉

: 작자 미상의 책이 대부분. 옛날 글로써 참다운 보물을 뜻함. 하지만 모든 것이 보물이지는 않다. 읽는 독자에게 와 닿는 것이 보물이 된다. 자기 삶의 고민과 지점에 결부되어 다가오기 때문이다.

潛讀(잠길 잠, 읽을 독)
잠 독

: 고문을 읽는다는 것은 현대의 읽기와는 다를지 모른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삶의 의미와 결부시켜 텍스트에 젖어서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자에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천천히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 한자 천천히 익히는 것이 한문 공부에서 중요한 공부다. 세밀하고, 깊이 있게 보아야 다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형식으로 보자면 모순적이지만 경험논리로 보자면 옳은 말일 수 있다.

양생주(養生主)-장자(莊子)
양 생 주 장 자

吾生也有涯而知也无涯[1] 오 생 야 유 애 이 지 야 무 애	내 삶은 한계가 있는데 앎에는 한계가 없다.
以有涯隨无涯殆已 이 유 애 수 무 애 태 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한계가 없는 것을 추구하다보면
已而爲知者殆而已矣[2] 이 이 위 지 자 태 이 이 의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태로울 뿐이다.

● 해설

: 즉 자기가 다 알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인간은 쉽게 가진다. 삶의 경험들이 축적되었을 때 읽을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욕심이 있다.

---

1) 有涯, 물가의 끝. 여기에서는 한계를 의미한다.
2) 爲(위)라는 말은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하다는 뜻도 있다. 예를 들어 위하여라는 말을 국한문혼용일 때, 爲하야로 표기한다. 위하여는 목적을 두는 것이 있다. 僞(거짓 위)와 뜻이 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알아야 겠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四時 도연명
사 시

春水 滿四澤
춘 수 만 사 택

夏雲 多奇峰
하 운 다 기 봉

秋月 揚明輝
추 월 양 명 휘

冬嶺 秀孤松
동 령 수 고 송

전체: 어울림이 있는 것을 절이라고 이야기한다. 5구시의 경우 앞의 두 수와 뒤의 세 수를 나눠 해석하는데, 춘하추동으로 어울림이 있고, 물-구름, 달-고개의 어울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론 만, 다, 양, 수가 모두 동사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多(다)와 秀(수), 揚(양)은 각 구절에서 살펴본다.

1절: 여기에서 四(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4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 세 번 생각하라는 것이 하루에서 틈틈이, 자주 생각하라는 것처럼 동, 서, 남, 북을 사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사고로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四方(사방)이라는 뜻은 온 세상, 모든 곳을 의미한다. 滿(만)은 가득하다는 뜻이다. 즉 봄의 물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澤(택)은 못을 의미하는데, 단순 연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물이 고인 곳, 즉 생명의 기운이 가득찬 곳을 의미한다. 즉 봄의 물이 온 못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봄이라는 해석이 된다.

2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구름이 만들어 낸 봉우리라는 의미도 되고, 구름이 많이 모여 마치 봉우리처럼 보인다는 의미도 된다.

3절: 揚(양)은 흩날리다는 뜻도 있다. 가을달빛이 물 위에 흩뿌려지는 풍경이다.

고문 중에는 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왜 그럴까? 일체무상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무상이라는 것은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정불변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 즉 변화가 있다. 계절은 반복보다 변화가 있다. 한시라도 같은 풍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절에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생시방심이라는 말이 있다. 때에 맞는 마음을 의미한다.
고문에 소나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소나무의 외관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다. 소나무는 초록을 잃어버리는 겨울에도 푸른 색을 유지한다. 그 모습은 시류에 휩싸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른 모습에서 자기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절이라는 변화는 과정 안에서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이는 새로운 생명의 과정이기도 하고, 겨울이 상징하는 죽음은 개체로의 단절이지만 기화, 기로 흩어지고 다시 혹은 새로움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부사시-굴원

●배경: 전국 시대, 진나라의 초, 연, 오 시대 때의 인물인 굴원은 진나라의 연횡 정책에 맞서서 합종해야한다고 했지만[3], 온갖 모함과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유배된다. 어부사시는 이때 굴원이 쓰여졌다는 설과 유배된 굴원을 보고 쓴 시라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굴원이 썼다기엔 자기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漁父辭-屈原
어부사 굴원

屈原既放 : 굴원이 이미 추방을 당해
굴 원 기 방

遊於江潭 行吟澤畔 : 특정한 목적 없이 물가에 앉아 시를 읊조리고 있었다.
유 어 강 담 행 음 택 반

顔色憔悴 形容枯槁 : 안색은 초췌하고 모습은 마르고 말라 생기를 잃었다.
안 색 초 췌 형 용 고 고

漁父見而問之曰 子非三閭大夫與 : 어부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당신은 삼려대부여의 지위에 있던 자인데
어 부 견 이 문 지 왈 자 비 삼 려 대 부 여

何故至於斯 : 어쩌다 여기까지(이 지경까지) 오셨나이까
하 고 지 어 사

屈原曰 擧世皆濁 我獨淸 : 굴원이 답하길, 세상이 탁한 와중에 나 혼자 맑더라.
굴 원 왈 거 세 개 탁 아 독 청

衆人皆醉 我獨醒 : 사람들은 모두 취해있고 나는 아침이 될 때까지 혼자 깨어있었다.
중 인 개 취 아 독 성

是以見放 : 그래서 방으로 추방당했다.
시 이 견 방

漁父曰 聖人不凝滯於物 : 어부가 말하길, 성인은 상황에 걸리지 않고 흘러가는데
어 부 왈 성 인 불 응 체 어 물

※ 어부사 후반부는 2강에 이어집니다.

---

3) BC 4세기 말 여러 나라를 유세하고 있던 소진(蘇秦)은 우선 연에게, 이어서 다른 5국에게 '진 밑에서 쇠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하여, 6국을 종적(縱的)으로 연합시켜 서쪽의 강대한 진나라와 대결할 공수동맹을 맺도록 하였다. 이것을 합종(合從:從은 縱)이라 한다.

뒤에 위나라 장의(張儀)는 합종은 일시적 허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국을 돌며 연합할 것을 설득하여 진이 6국과 개별로 횡적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을 연횡(連衡:衡은 橫)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은 합종을 타파한 뒤 6국을 차례로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합종연횡 [合從連衡] (두산백과, 두산백과)